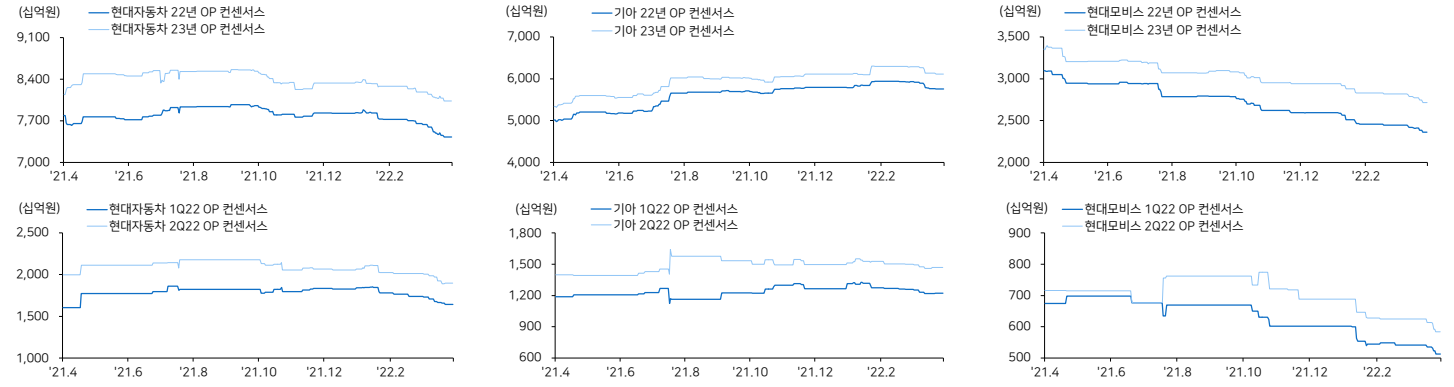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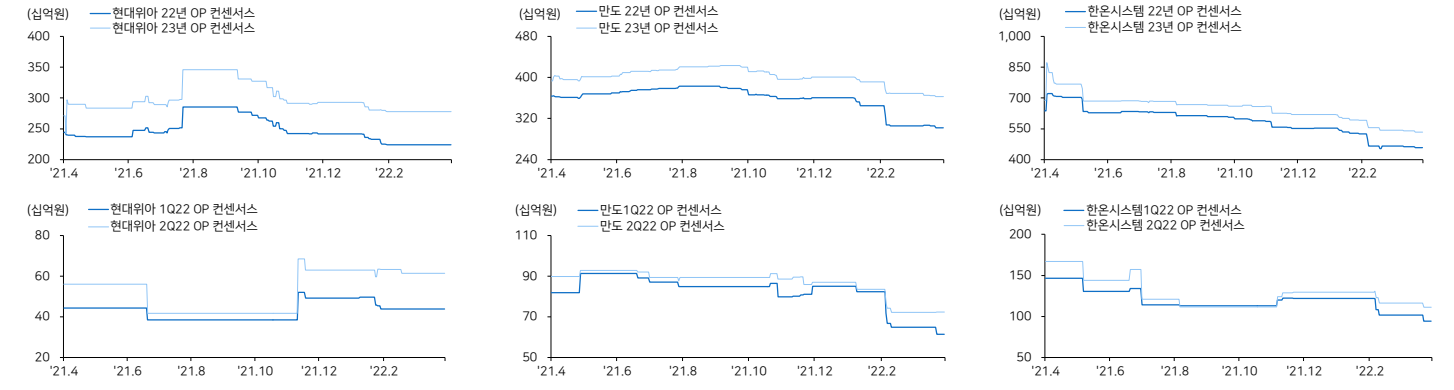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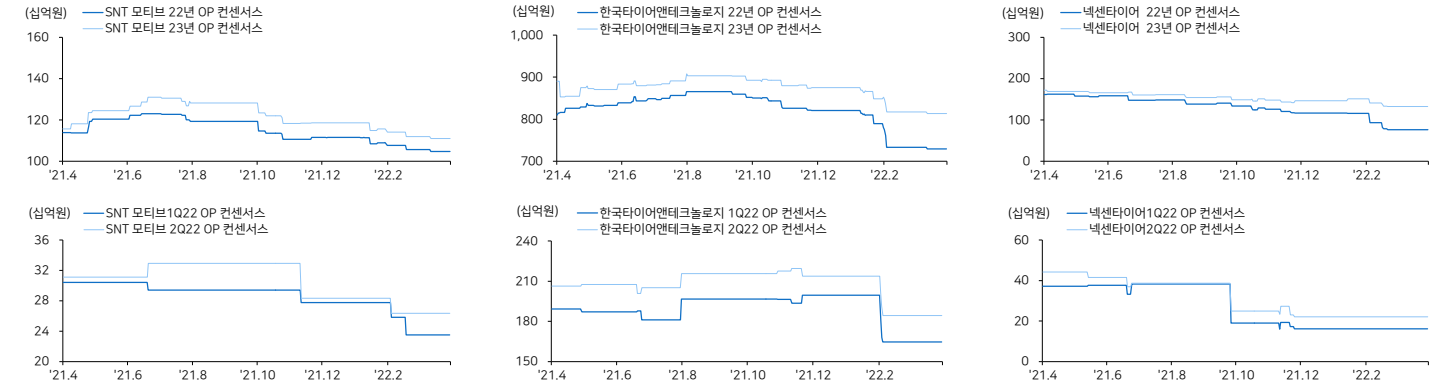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유럽서 테슬라 제친 현대·기아 전기차, 하반기 이후 쉽지 않다 (아시아경제)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가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 점유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주요 업체들의 하반기 현지 시장공략에 따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현지 EV 생산기반이 체코 공장밖에 없는 현대차그룹의 난항이 예상된다.
<https://bit.ly/3K2La6G>

전기차 자금 계약에도 올해 못받는다... EV6는 16개월 대기 (파이낸셜뉴스)

EV6의 출고 대기기간은 지난 2월 13개월, 3월 15개월에서 이달에는 16개월로 길어짐. 현대 아이오닉5, 포터EV, 제네시스 전기차 GV60, GV70 전동차 모델은 이달 차량을 계약하면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함.
<https://bit.ly/3NOCG51>

Ford's first-quarter sales fell 17% as the automaker battled a chip shortage (CNBC)

Ford의 미국 신차 판매는 3월 yoy -26%, 1분기 -17% 감소함. 주요 감소원인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으로 알려졌다. 수익성 높은 F-150은 1분기 판매가 -31% 감소함. 포드는 2월 대비 3월 재고 향상을 기다리겠다고 언급함.
<https://cnb.cx/37ghwMX>

Hertz to buy up to 65,000 electric vehicles from Polestar (Reuters)

미국 렌트카업체 Hertz는 65만대의 Polestar EV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 올봄 유럽과 올해 말 북미와 호주에서 서비스 가능할 예정. Hertz는 이전에 10만대의 Tesla Model 3 구매 계약을 한 바 있음.
<https://reut.rs/3x0J03J>

현대차·기아, 1분기 '2만대 셀링카' 없었다... 전략차종 밀어주기? (아시아투데이)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 1분기 국내에서 판 모델 중 2만대를 넘는 차량이 한 차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올렸던 신차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관심이 분산 됐다는 분석과, 부족한 반도체의 전략적 배정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존재.
<https://bit.ly/3NM66kx>

차량용 반도체-원자재 부족, 전기차 스타트업 최대 위기 (뉴스1)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글로벌 전기차 스타트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됨. 차량용 생산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상장에 성공한 루시드, 리비안, 니콜라, 카누, 피스커 등의 주가가 연초 대비 하락하는 중.
<https://bit.ly/3uUC590>

Wind, solar, EVs, can prevent catastrophic climate change, says new IPCC report (electrek)

IPCC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연간 1.5도의 온도 상승 목표를 유지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나타남. 또한 전기차는 기후변화를 제한하는 데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
<https://bit.ly/37fpjY>

EV stocks rise in Hong Kong as market sees overall rebound (CNEV Post)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실사를 중국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거하고 중국 자동차 업체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NIO, Xpeng, Li Auto, BYD 등의 주가 상승 중.
<https://bit.ly/3DMMh8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